이틀만에 2억 꿀꺽… 신종 사기 '꿈틀'

보이스피싱-스미싱 결합된 형태 신종 범죄 발생
경찰·금감원 등 사칭… 원격조종 어플 설치 유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고 보유예금도 모두 빼내

제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문자메시지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55)씨에게 '416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416불을 사용한 적이 없는 고씨는 항의를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불상의 인물은 자신을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해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인물이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한 인물이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Quick Support)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 어플은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어플이 설치되자 사기범들은 이틀 동안 무려 1억9900만원을 고씨에게서 빼냈다.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27일에는 고씨의 명의로 4900만원(현금서비스 2건·카드론 2건)을 대출 받은 데 이어 28일에는 고씨가 예금하고 있던 1억500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씨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 회복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전화해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절대 깔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자치경찰단 "세척시설 미설치·시멘트 등 방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1곳은 행정처분 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다. 또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

교육청 추모공간 마련
각급 학교별 추모 행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로비에 추모공간을 마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추모묵념 및 메시지 남기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선진국의 경우 정책의 1순위가 '안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이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현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이 일상화되는 교육,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각급 학교별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바다에서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다 제주국제대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16일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기억하라 그날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함께 국제대에 명예입학한 희생자 7명을 기리는 추모공연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단독주택 20동 임차 불법숙박 '덜미'

"하루 숙박료 3만~8만원"… 홈페이지·포털 통해 영업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오던 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통해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에서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온 A씨를 적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8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점검TF팀 신설 후 가장 큰 규모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해 영업하면서 바로 인근의 단독주택 20개동을 임차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시설을 갖추고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루 3만~8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준공된 다른지방 거주자 소유의 소형 단독주택 20동 전체를 빌려 불법숙박 영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민원도 제기됐고, 시에서도 눈여겨보던 곳으로 여러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고, 소독 등 위생준수 의무도 안지키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일 수 있다.

서귀포시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주1회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독자제보 750-2225

축사 창고서 윷놀이 도박 무더기 검거

경찰, 판돈 700만원 압수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한 축사 창고에서 7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행위를 벌인 김모(60)씨 등 12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쯤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인적이 드문 제주시 외곽지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원씩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건 돈을 보관했다가 분배하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하며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집책을 통해 지인 위주의 도박 인원을 모집했으며,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00여만원을 압수했다. 김현석기자

"대도민 공익사업은 道가 직접 운영해야"

민노총 천막농성 돌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도민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고용하라고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도청앞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도민 필수 업무에 대해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제초작업중 손 부상 50대 추자도서 헬기로 긴급이송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추자도 대서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51)씨가 낫으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등을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추자보건지소로 옮겨진 김씨는 응급 지혈을 받았지만, 왼손 신경 및 혈관이 크게 손상돼 긴급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주지방경찰청 헬기로 이날 오후 4시47분쯤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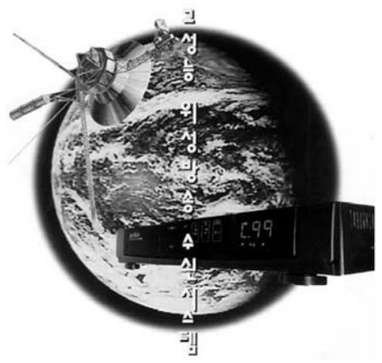
한편 올해 들어 경찰헬기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은 3번째이며 지난해에는 총 20회의 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송은범기자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의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읍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